



“걸어서 국회로”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로 가는 희망뚜벽이 금속노조, 7일 구미에서 348km 도보행진 출발 ... 선배 노동자·시민들 참여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투쟁을 지지하는 노동자·시민들이 모여 경북 구미에서 서울 국회로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금속노조는 7일 오전 경북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미에서 국회까지 348킬로미터를 걷는 한국옵티칼 희망 뚜벽이 행진을 펼친다”라고 밝혔다. 국회·정치권과 정부를 향해 한국옵티칼 노동자 고용승계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곧 고공농성 400일이다. 박정혜·소현숙 두 조합원을 생각하면 착잡하다. 위원장으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일본 자본 옵티칼과 외투기업 횡포 막는 일에 금속노조가 더 힘 쏟겠다”라고 약속했다.

박정혜·소현숙 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은 지난해 1월 8일 사측의 공장 철거 시도를 막기 위해 공장 위 농성을 시작했다. 기자회견 날 고

공농성 397일째를 맞았다.

‘한국옵티칼 고용승계로 가는 희망 뚜벽이’는 지난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먼저 희망 뚜벽이를 제안하고 직접 앞장 서주신 김진숙·박문진 두 선배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과 박문진 보건의료노조 지도위원이 “지켜만 볼 수 없다”라며 희망 뚜벽이를 제안했다. 1차 때는 부산에서 구미까지 200여km를 걸었다.

한국옵티칼 노동자들도 희망 뚜벽이 출발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최현환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회장은 “이번 희망 뚜벽이를 통해 국회가 하루빨리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문제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환 지회장은 “모기업인 일본 니토텐코에 한국옵티칼 노

동자 7명 고용승계는 전혀 어렵지 않은 일”이라며 “무엇보다 우리 물량을 모두 가져간 한국니토텐코로 고용승계는 당연하다”라고 강조했다.

고공농성 중인 박정혜 조합원은 “연대 동지들 덕분에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희망 뚜벽이가 한국옵티칼 투쟁 불씨를 다시 당겼다. 희망 뚜벽이가 끝날 때쯤 꼭 내려가 땅을 밟고 싶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 희망 뚜벽이 참가자들은 ‘박정혜, 소현숙 이겨서 땅을 딛도록’, ‘한국옵티칼 고용승계 국회가 나서라’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농성장에서 구미역까지 걸었다.

희망 뚜벽이는 서울을 향해 매일 10~20킬로미터를 걷는다. 이달 23일 니토텐코 자회사인 경기 평택 한국니토텐코 공장에 도착한다. 최종 목적지인 서울 여의도 국회는 다음 달 1일 다다를 예정이다. 한국옵티칼 투쟁을 지지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